

식약처, 수산물 업계 간담회 개최

- 식품기준기획관, 업계와 수산물 기준·규격 개선 방향 논의 및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효과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1일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수산양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한국수산방역기술, 수산물 양식업체 관계자 등

이번 간담회는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대상 확대 ▲수산물 신속 검사키트 도입 등 업계와 수산물 기준·규격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관리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수산물 안전 확보와 산업성장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성관 (043-719-3851)
		담당자	연구관	최원영 (043-719-3853)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	책임자	과 장	문재은 (043-719-4201)
		담당자	연구관	장귀현 (043-719-4204)

- **일시** : 2025. 4. 11.(금), 13:00~15:00
- **장소** : (사)대한수산물품질관리사회 회의실(부산 남구 소재)
- **참석** : 총 13명
 -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등 5명
 - (업계) (사)대한수산물품질관리사회 한국수산물방역기술 수산물 양식업체 관계자 등 7명

□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3:00~13:15 15'	· 행사 및 참석자 소개	
13:15~13:20 5'	· 인사말씀	식품기준기획관
13:20~13:40 20'	· PLS 추진계획 및 규제개선 사항 등 설명	유해물질기준과 담당 연구관
13:40~14:50 70'	· 자유토론	
14:50~15:00 10'	· 마무리	유해물질기준과 과장